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299.9	15.9	120,000	1.3	13.2	3.9	25.1	32	-31.7	0.7	0.7	-0.1	22
현대중공업지주	6,294.8	20.7	386,500	2.4	17.8	-2.6	1.4	4.5	7.9	0.8	0.7	10.0	10.5
현대알렉트릭	620.5	5.0	60,800	-1.0	4.5	-33.0	-46.7	266	45.9	0.6	0.6	3.5	6.3
현대건설/기계	1,170.3	9.2	118,500	-3.3	-4.4	-30.1	-29.9	155	94	1.0	0.9	12.3	12.0
삼성중공업	4,504.5	17.6	7,150	0.6	10.9	-3.4	10.5	-9.3	-15.8	0.5	0.6	-1.8	0.6
대우조선해양	3,055.4	7.5	28,500	-0.5	12.0	6.7	105.0	3.8	8.3	0.9	0.7	7.8	6.5
현대미포조선	1,998.0	10.5	99,900	0.6	8.0	7.0	26.9	4.6	15.3	0.9	0.9	4.7	5.1
한진중공업	275.2	6.9	2,595	1.2	-8.6	-23.9	-21.6	-1.0	-59.4	0.5	0.5	-25.4	-23.5
현대엘리베이터	2,384.5	22.0	87,800	-0.8	-4.2	-23.3	61.4	231	44.9	2.6	2.1	3.7	4.1
두산밥캣	3,488.7	25.8	34,800	-2.0	7.6	1.8	-2.8	12.7	12.3	1.0	1.0	8.3	8.4
현대로템	2,273.8	2.6	26,750	-0.6	-2.0	-31.0	42.7	-48.0	109.5	1.7	1.7	3.6	5.7
하이록코리아	324.7	48.9	23,850	-2.3	-4.0	-18.3	6.0	13.8	19.8	1.0	1.0	5.6	6.8
성광밴드	336.1	15.9	11,750	0.9	10.3	-8.2	17.7	-20.6	-160.0	0.7	0.7	0.9	2.3
태광	353.8	12.9	13,350	1.5	20.3	5.1	10.8	-21.8	40.8	0.8	0.8	2.5	3.2
두산중공업	1,768.9	14.9	15,100	1.0	1.7	-19.3	-1.6	-6.2	28.9	0.5	0.5	5.1	6.3
두산인프라코어	2,069.0	19.5	9,940	-1.1	0.9	-7.1	14.4	13.9	6.3	1.3	1.0	13.1	12.6
두산엔진	124.7	4.1	3,785	1.8	-2.3	-42.6	8.6	-254	-11.1	0.5	0.6	-6.7	0.3
한국항공우주산업	3,957.5	14.4	40,600	-0.1	16.0	-10.7	-14.4	-16.8	33.6	3.5	3.4	12.0	13.6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345.2	11.6	25,850	1.8	15.4	-21.4	-27.3	-28.3	37.9	0.6	0.6	2.7	4.4
LIG넥스원	762.3	9.5	34,650	7.3	0.4	-31.5	-42.1	-88.4	28.7	1.3	1.3	7.2	13.2
태웅	314.1	4.7	15,700	0.3	6.1	-14.7	-18.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02.6	5.6	7,510	-1.1	23.1	17.7	48.7	-6.6	160.0	2.3	2.5	4.5	13.7
한국카본	281.3	13.5	6,400	1.8	14.9	4.9	19.4	378.1	281.4	0.9	0.9	3.0	5.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두산중공업, TRS로 밥캣 지분 털었다**

두산중공업은 TRS(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두산밥캣 지분 10.55% 전량을 블리ქ일로 처분했다고 공시함. 29일 종가 34,800원을 기준 가격으로 설정, 총 매각금액은 3,681억원임. 두산중공업은 당장 자금이 필요하지만, 향후 두산밥캣 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TRS 방식을 택했다고 알려짐. (더밸)

현대중공업지주, 의료 빅데이터 신사업 진출

현대중공업지주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등은 총 100억원을 출자해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할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 빅데이터 시장은 2023년 5,600억원 규모로 2013년 대비 6.5배 성장이 전망됨. 현대중공업지주는 사업모델 다각화 및 전략 등을 담당할 계획임. (EBN)

Jinhui back in black as it opts for LSFO to meet IMO 2020

홍콩선사 Jinhui Shipping은 2분기 순이익 28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폭증전환함. 평균 운임이 전년동기 대비 34% 상승한 점이 호실적의 주된 요인임. 또 Jinhui는 환경규제 대응 방안으로 저유황유를 사용한다고 발표함. 스크러버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함. (TradeWinds)

현대오일뱅크 IPO, '감리' 이슈에 신고서 제출 9월로 연기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당초 이달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9월로 연기했다고 알려짐. 금융당국은 감리를 지난달 중순에 시작했으나, 감리를 꼼꼼히 진행한다고 알려짐. 감리가 마무리되어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르면 이달 말에 마무리해 10월 말까지 공모를 마칠 전망임. (조선비즈)

Maersk executive says 2020 may add \$2bn to fuel bill

Maersk Line 관계자는 2020년 환경규제 도입으로 연료비에 연간 20억달러가 추가된다고 전망함. Maersk는 2017년 연간 연료비로 33.7억달리를 소모했으나, 저유황유 도입으로 연료비가 급증함. 2분기 보고서에서 스크러버 장착에 대해서는 소수의 선박에 적용되는 시범적 기술로 언급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2년 반 사이 VLGC 70척 시장 진입

노르웨이 Avance Gas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사이 인도된 신조 VLGC가 70척에 달한다고 알려짐. 동기간 LPG 물동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신조선 인도량 증가가 더 컸음. 앞으로도 LPG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나, VLGC는 4분기 3척과 내년 23척이 더 인도될 예정임. 동시에 노후선 폐선도 증가하고 있음. (선박뉴스)